



### 전남농기원, 유가공품 소비 촉진 체험교육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청년농농타운에서 목장형 유가공품의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자 체험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이번 교육은 안전한 축산물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가와 소비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기획됐으며, 20여 명의 소비자가 참여해 다양한 유가공 체험과 유가공품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은 이론 강의와 실습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오전에는 '치즈와 요구르트'를 주제로 유제품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오후에는 유가공품 제조 실습을 통해 전남목장형유가공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스트링치즈와 요구르트의 제작 과정을 체험하고, 직접 만든 치즈를 활용해 자신만의 피자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지현 기자



### 조선대, 대한금속·재료학회 학술대회 우수상

조선대학교는 신소재공학과 박민수 학생이 지난달 28~30일 열린 '2024년도 대한금속·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학생 포스터 발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박민수 학생은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설계교과목에 참여해 '탄재 활용 가능성을 위한 새만금 재배 케나프의 열분해 거동'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는 대체 탄재로서 케나프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포벽 주성분이 분해되는 온도 구간에서의 열분해를 통한 변화 및 특성 등을 다루고 있다.

박민수 학생은 "학부생 신분으로 대한금속재료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영광이었는데, 우수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김선중 지도교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학부생들의 연구활동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박민수 학생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며 "많은 학생들이 연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동환 기자



###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선정

광주 서구가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

서구는 지난 21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열린 2024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적경제 발전과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역 기반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실시됐다.

서구는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상담실 △사회적경제 로컬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사업 △마실길 사회적경제 활성화 모델 발굴·지원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진출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 성과를 인정받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정상이 기자



### 광산구, 감염병예방관리 평가 국무총리 표창

광주 광산구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열린 '2024년 감염병관리 학술대회(콘퍼런스)'에서 지자체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 평가 유공으로 기초자치단체 최고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열린 2024년도 지자체 감염병 예방관리 평가는 지자체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및 정책을 평가하고, 우수한 지자체에 포상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 지표는 △지자체 감염병 대응 교육 이수율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 △23~24분기 6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률 △지자체 감염병 예방·관리 우수사례 등이다.

광산구는 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보고와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빠른 대응과 감염 확산 차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법정감염병 신고 기한 준수율 100%를 유지해 광산구 감염병 대응체계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입증했다. 김상철 기자



### 전남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연수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교원 및 전문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에 맞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연수를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이번 연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를 분별해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고, 교육 현장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프로그램으로 △슬기로운 유튜브·게임 생활 △허위 정보 확인 수업 등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과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대처 방법을 다뤘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 허위 정보를 구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들으면서 수업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 'ISAAC국제종합학술대회' 우수논문상 호남대 오태원 교수



호남대학교는 시각융합디자인학과 오태원(사진) 교수가 지난 22~23일 코엑스 C홀 컨퍼런스룸 301호에서 열린 ISAAC국제종합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VIDAK)와 (사)인터넷방송통신학회(ISAAC), 국제기술문화진흥원(IIBC)이 공동개최한 이번 국제종합학술대회에서 오태원 교수는 'AI 기반 인터랙티브 디지털 사이니지 인터페이스 표준 모델 연구' 제목의 학술발표 영문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논문의 주제는 오 교수가 그동안 광주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디자인과 미디어 아트 영상작품을 송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디지털 LED 사이니지의 인터페이스 표준모델에 대한 연구 내용이다.

오 교수는 '디지털 사이니지 디자인' 관련 디자인특허등록을 진행중이며, 생성형 AI 디자인의 콘텐츠 개발, 디자인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CPTED 등의 연구논문을 진행 중이다.

오 교수는 호남대 시각융합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산업·공간디자인, 설치예술과 미디어아트 작가로 활동 중이다. 국내외 다수 초대 전시와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내년 8월 파리 프로젝트 전시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가할 예정이다. 최동환 기자



### 광주경찰, '희망티움 통합지원단 더 좋은 파트너십 데이'

광주경찰이 지난 22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제2회 희망티움 통합지원단 더 좋은 파트너십 데이'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2024년 희망티움 통합지원단 운영 성과 및 주요 우수사례를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복지 향상에 공헌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티움 멤버십을 위촉해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4년 희망티움 통합지원단 경과 보고 △우수 직원 표창·감사장 전달 △티움 멤버십 위촉 △김미경 경사 초청 특강 순으로 이뤄졌다.

희망티움 통합지원단은 2023년 광

주경찰,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공동 주관하고 지역사회 민간기관의 참여로 운영되는 독자적인 민관 통합 치안복지 네트워크로 지난 10월 광주시 통합돌봄 시스템과 광주시교육청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의 참여로 새로운 광역 치안복지 시스템을 구축했고, 범죄로 인한 위기의 순간 신속하고 촘촘한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성주 광주경찰정장은 "상처받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매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지역사회 모든 기관 및 관계자에게 감사드립니다"며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보호 및 지원을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과거 SNS 재조명

배우 정우성(51)과 모델 문가비(35) 사이 태어난 아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최근 문가비가 올린 SNS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2일 문가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소식을 알리며 화제를 모았다.

당시 문가비는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조금은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나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의 대부분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핏공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아무것도 준비돼 있지 않은 너무나 부족한 예비 엄마였기에 모든 걸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건 겁쟁이 엄마의 선택이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문가비는 "하지만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는 이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되어겠다는 다짐을 했고 그래서 엄마로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기를 간절히 바라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디스패치가 문가비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이라고 보도하면서 같은 날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친자가 맞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어 "양육 방식은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건 아니다. 문가비와 교제 여부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났으며 교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임신해 올해 3월 출산, 정우성은 친자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직접 태몽을 지어주고 산후조리원과 양육비 등을 함께 논의했지만, 결혼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고 전했다. 문가비는 결혼을 원했으나, 정우성은 양육만 책임진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근 정우성은 배우 신현빈(38)과 열애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두 사람은 올해 초 막을 내린 지니TV 드라마 '사랑한다고 말해줘'에서 호흡을 맞췄으며 커플 아이템을 착용한 모습 등이 포착되며 열애설이 불거졌지만, 양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곽지혜 기자

Advertisement for @jnlibo (진일보) Instagram account, featuring a QR code and social media handles.